

# 타인의 일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자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34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

#### 아파도 티 낼 수 없다

"이번 여행에서 부처님께 흔했지 뭐예요. 마음을 잘 써야겠어요."

M씨는 직장 팀의 1박 2일 가을 여행 동안 중요한 경험을 했다. M씨는 팀의 총무로서 일정을 진행하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 30여명을 태운 버스가 서울을 출발하자 음모수 등을 나누어 주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에도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다.

한 시간 좀 지나 이번에는 어지럽고 구토가 날 것 같았다. 차멀미 같은데 평소 멀미를 한 적이 없었어 이상했다. 버스는 앞으로 세 시간을 더 가야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팀장과 다른 임원들은 그 사정도 모르고 대화도 하고 일도 점검하고 있었다. M씨는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오질 않았으나 이른 티를 낼 수가 없었다. 평소 공적인 일을 할 때 개인 사정을 내세우거나 투허 병했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면 '핑계이거나 의지 부족'이라고 좋지 않게 생각했었다. 좀 아프더라도 웬만하면 티를 안 내야 되고, 그 래야 전체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멀미를 해 보니 견디기가 힘들었다. 티는 낼 수 없고 간신히 필요한 말만 하고 자리로 들어와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두통이 있으니 잠도 안 왔다.

#### 부처님, 살려주세요

저녁에 목욕지에 도착하자 식은땀이 나고 있었다. 차를 안타니 이제 낮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저녁을 먹은 후 다시 머리가 아파왔다. 체한 것 같았다. 비상 두통약을 먹었으나 이상하게 듣지를 않았다. 저녁 일정 내내 M씨는 고통을 참았다. 아프다고 말하고 방에 드러누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 직장 MT중 건강 이상 증세로 곤욕

#### 타인의 아픔에 무심했던 자신 반성

#### 직접 겪어봐야 남의 고통 제대로

러나 임원으로서 함께 진행을 안 할 수도 없었다. 총무가 얼굴을 보고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네, 조금요" 하고는 다시 이를 악물고 필요한 일들을 했다. 밤에는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다. 마침내 숙소로 들어와 자리에 눕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내일도 종일 일정. 또 저녁에는 버스 네 시간을 탈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문득 '왜 그렇게 티를 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러면서 바로 지난 봄 여행이 떠올

랐다. 그때 옆자리에 앉게 된 동료 K씨가 버스를 타자 곧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자꾸만 자기 어깨에 기대는 것이었다. 같은 여자끼리지만 M씨는 왠지 거부했다. '차멀미 좀 한다고 왜 그렇게 티를 내?' 하며 싫은 마음이 났다. 그래서 슬쩍 어깨를 빼곤 했다. 일정 동안 K씨는 자주 방에 가서 누워 있곤 하여 다른 사람들이 걱정했었다. 그 때도 M씨는 '아파도 좀 참지. 의지가 강하면 견딜 수 있을 텐데 티를 내서 전체에게 지장을 주는군' 하며 볼 때마다 경멸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직접 아파보니 장난이 아니었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좀 참지, 왜 그렇게 티를 내?' 하는 자신의 음성이 또 들렸다.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 드는 소리였다.

#### 한 생각을 잘 하세요

이제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되었다. 참고 싶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한데 내가 이해 못하고 싫어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불자로서 마음공부 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냈으니 내가 다시 되돌아누나 하고 생각했다. 타인의 아픔을 그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 마음을 입력해버렸던 것이다.

"건강한 편이라 남들 사정을 잘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가 겪지 않은 남의 사정에 대해 함부로 마음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M씨는 요즘 '한 생각을 어떻게 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혹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차가운 마음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1>

### 정신분석과 불교-11

부처님의 교화 과정에서 정신분석적 접근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신분석은 피분석자의 과거 경험에 관심을 두고, 불교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정신분석과 불교의 입장을 대별해 주는 것이 유명한 '독화살 비유'다.

<중야합경> 제60권 221. <전유경(衛靈)의 내용이다.

어느 날 마라구주 존자가 혼자 생각하였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그러나 그동안 부처님께서는 이런 소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해준 바 없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도 궁금해진 존자는 결국

'부처님이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부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한다.

존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에 관해서 묻자 부처님은 독화살 비유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았다. 사람들이 그를 가엾이 여겨 독화살을 뽑으려 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화살을 뽑지 마라.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의 성과 이름과 신분, 그리고 키가 큰지 작은지, 살결이 거친지 고운지, 얼굴빛이 흰지 검은지 알아보아야겠다.' 독화살 맞은 이는 계속해서 '활을 쏘나무로 만들었는지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는지, 활줄이 힘줄로 되었는지 실로 되었는지, 화살 깃이 매달로 되었는지 독수리털로 되었는지, 알아보아야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부처님은 "결국 그 사람은 궁극에 하는 것을 다 알기도 전에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유경>에서 부처님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경계(警戒)로서 독화살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들었지만, 독화살 맞은 사람이 화살이 꽂힌 채 갖는 온갖 의문은 마치 정신분석에서 분석가가 환자의 무의식 속에 파문된 과거력을 캐내기 위해 애쓰는 장면과 흡사하다.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의 현재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 매달린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이미 흘러간 개인사에 연연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전유경>에서 강조하셨듯이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 현재 열심히 수행 정진한다.

하지만 정신분석에서 과거를 캐는

### 정신분석은 경험·불교는 현재에 관심

### '독화살 비유' 대표적... 열반의 길 모색

이유는 그 과거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와 연결된 과거'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에서 과거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부처님의 독화살 비유에 대입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은 그 사람이 맞은 독화살의 축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끝이 뾰족한지 갈고리처럼 생겼는지 알아야 살아야 살을 빼고 빼낼 것인지 그냥 빼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독화살이 살에만 꽂혔는지, 뼈까지 박혔는지, 아니면 심장까지 꿰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뼈만 연후에도 독의 종류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그에 알맞은 해독제를 처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자의 과거 경험에 현재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재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 신영게시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국내 최초 '불교상담학' 신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2008학년도부터 불교상담학 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불교상담학 전공을 비롯해 자아초월상담학(transpersonal psychotherapy), 요가치료학, 명상학, 심신치유교육학, 뇌과학 역시 전공으로 개설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원서교부는 10월 15~25일, 면접과 구술고사로 치러질 전형은 10월 27일 오전 9시 실시된다. 합격자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02)890-2800, www.sgsb.ac.kr

●법원사 백고화 화형 기념행사 대구 법원사가 7월 4일 시작한 제7회 백고화 화형의 회상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0월 16일 오전 11시에는 후불평화행안법 회를,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화형기념 산신제와 화회 개최

한다. 화형일인 17일 오전 11시 법주사 화주 혜정 큰스님을 모시고 보살개불명수지대법회를 봉행한다. 18일에는 화원사 천은사 태안사를 도는 삼사순례법회가 열린다. 19~21일 봉정암 순례법회도 준비된다. (053)766-3747

●2007 한사랑 가족문화축제-부산 금정구중합사회복지관이 10월 19~20일 2007 한사랑가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금사탑마트 야외 무대에서 벌어질 가족문화축제는 마술, 수화, 댄스, 세 대별 문화축제, 7080 통기타, 밸리댄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이주여성 문화일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이동건강검진, 의류 및 먹거리 장터 등으로 꾸며진다. 19일 오후 6시 청소년가요제, 20일 오후 6시 가족노래자랑은 이번 가족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 청소년 가요제와 가족노래자랑 참가자 전원

에게 참가상이 마련돼 있으며 1~3등과 인가상 시상 이 준비돼 있다. (051)532-0115

●용주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화성 용주사가 10월 20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전개대법상 경락 스님(용주사 율주), 갈마사리 무전장 스님(前 포교원장), 교수사리 영산 스님(용주사 중앙선원 전담)을 심사위원으로 수계가 이루어진다. 수계비용은 1인당 3만 원. (031)234-0040

●중앙절 기도 및 영인도법회-서울 도선사가 10월 19일 오전 10시 호국참회원 3층 대법당에서 중앙절 기도와 조상영가천도를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선량 부모의 극락왕생, 자손들의 안생을 부처님 전에 발원 하는 기도이다. (02)993-3161



그림 : 문병성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고통회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혜전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고통회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론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

## 중국 하문 국제불사 용품전람회 참관단 모집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중국 하문에서 11월 초 개최되는 “국제불사 용품전람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본 박람회는 중국내 최대규모의 불교 관련 박람회로서 불교산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박 5일의 일정동안 박람회 참관과 함께 석차, 사찰건축자재, 차 및 각종 불교용품 공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갖게 되는, 이번 참관단 모집에 관심있는 스님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 **참관단 일정** : 2007년 11월 7일부터 11일 까지(4박 5일)
  - 2 **준비사항**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중국비자(없으신 분은 별도 문의)
  - 3 **비용** : 75만원(중국비자비 별도)
  - 4 **신청 마감** : 2007년 10월 25일까지(선착순 20명 예정)
  - 5 **접수처 및 연락처** :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 홍보팀장 조은성  
전화 02)706-3493 / 팩스 02)6280-8191 / 핸드폰 011-9807-3100
- \* 일정은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 박람회 사무국**